

# 수령형상소설에서 인간관계의 특성과 기본요구

정 철 호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작품은 수령의 령도밑에 발전하는 력사적사건을 기본줄거리로 하고 수령을 중심으로 인간관계를 엮으며 수령에 의하여 설계되고 조직령도되는 혁명사업을 기본으로 펼쳐 나가야 한다.》(《김정일선집》 증보판 제16권 231페이지)

수령형상소설창작에서 새로운 전환을 일으키자면 수령형상소설의 인간관계의 특성을 잘 알고 창작실천에 적극 구현하여야 한다.

수령형상소설에서 인간관계는 소설일반의 인간관계와 공통점을 가지면서도 수령형상소설의 생리에 따르는 자기의 고유한 특성을 가진다.

수령형상소설에서 인간관계의 특성은 무엇보다먼저 그것이 수령을 중심으로 하여 맺어지는 운명적인 인간관계라는데 있다.

수령을 중심으로 하여 맺어지는 운명적인 인간관계라고 할 때 그것은 수령이 다른 인물들과의 관계에서 결정적역할을 하는 위치에 있다는것을 의미한다.

수령형상소설에서의 인간관계는 다양하고 방대하다. 다양하고 방대한 인간관계속에서 중심을 뚜렷이 살려야 혁명투쟁에서 수령이 차지하는 지위와 역할을 옳게 형상할수 있다.

일반적으로 소설에서 주인공의 위치문제가 제기된다. 그러나 그것은 전반관계발전에서의 총적인 위치를 말하는것이며 작품의 초기부터 마감까지 전반을 포괄하는 중심적위치, 매 인간의 운명에서 결정적역할을 하는 위치라고 보기는 힘들다.

수령형상소설에서 수령이 차지하는 중심적위치는 철저히 작품의 어느 한 부분이 아니고 전반을 포괄하는 위치 특히는 다른 인물들과의 운명적관계에서 결정적역할을 하는 위치이며 일반소설에서와 비할바 없는 뚜렷하고도 확고한 위치이다.

수령형상소설에서 인간관계의 특성은 다음으로 그것이 수령형상과제가 제기되고 해명되게 하는 관계라는데 있다.

혁명투쟁과정에 수령과 전사들사이에 여러가지로 맺어지는 관계들을 그대로 옮겨놓은것이 수령형상소설에서의 인간관계가 아니다. 수령형상소설에서의 인간관계는 철저히 조국과 인민의 운명문제, 수령형상과제가 제시되고 심화되는 과정에 발전하는 관계이다.

수령형상과제는 인민대중의 운명적문제를 체현한것으로 하여 일반소설에서의 인간문제와는 다른 폭과 깊이를 가진다. 바로 이러한 운명적문제가 체현되어있는것으로 하여 수령형상소설에서의 인간관계는 일반적인 인간관계가 아니라 수령과 인민대중의 운명적인 관계로 된다.

인민대중의 운명적문제가 제기되고 그것이 심화발전되는 관계를 형상한 작품은 반영하는 생활용적이 작다고 하여도 수령형상명작으로 된다.

수령형상소설에서 인간관계의 특성은 다음으로 그것이 심각한 극을 안고있는 인간관계라는데 있다.

일반소설에서의 인간관계도 극을 안고있는 관계라고 말할수 있다. 즉 대립과 충돌, 오해와 불신 등 감정의 첨예한 대립이 조성된다.

그러나 수령형상소설에서의 인간관계는 수령을 중심에 모신 관계인것으로 하여 일반

소설에 비할수 없는 폭과 깊이에서의 극성이 체현되게 된다.

수령형상소설에서 극적인 인간관계로서 우선 내면세계의 심각한 체험을 안고있는 수령과 등장인물들사이의 관계를 들수 있다.

수령형상소설에서는 그 어떤 개인에 비할수 없는 위대한 인간의 내면세계를 그린다. 혁명투쟁과정에 수령의 내면세계의 심각한 체험과정은 독자들에게 일반소설에 비할바 없는 강렬한 극적건인력을 불러일으킨다.

실례로 단편소설 《영원》에서의 인간관계는 위대한 수령님의 내면세계에서의 심각한 극적체험을 보여주는 인간관계이다.

수령형상소설에서 극적인 인간관계로서 또한 수령과 적대계급과의 준엄한 역사적대결과정에 벌어지는 관계를 들수 있다.

혁명투쟁은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말살하려는 력사의 반동들과의 첨예한 대립과 충돌을 동반한다. 수령형상소설에서는 이러한 대립과 충돌을 폭넓고 깊이있게 예술적으로 반영함으로써 극적관계를 첨예하게 조성할수 있다.

총서 《불멸의 력사》중 장편소설 《고난의 행군》에서 위대한 수령님과 기본상대인물인 일제의 괴수 관동군 참모장과의 관계는 이러한 극적관계라고 볼수 있다.

수령형상소설에서의 인간관계는 단순한 사건극이 아니라 인민대중의 운명문제를 중심에 두고 첨예하게 조성되는 극을 안고있는 관계로 된다.

수령형상소설에서 인간관계의 특성은 다음으로 그것이 주선이 뚜렷하게 두드러지는 관계, 부선들이 설정되는 경우에도 주선이 결정적이며 주도적인 관계라는데 있다.

일반적으로 소설에서 인간관계는 주선과 부선의 교차로 구성의 립체성을 살려낸다. 특히 다주인공소설에서 동일한 비중을 가진 인간관계들이 설정되는것은 일반적이다.

수령형상소설에서는 수령을 중심에 모신 인간관계선이 뚜렷하게 설정되면서 그것을 돋구는 방향에서 부선들을 설정한다. 수령형상소설에서는 동질적인 부선들을 복잡하게 설정하지 않는다. 그것은 방대한 생활을 폭넓게 그린다고 하면서 부선들을 많이 설정하고 가치를 치게 한다면 주선이 약화되기때문이다.

수령형상소설은 일반주인공형상이 아니라 수령형상이기때문에 주선을 최대로 강화한다. 그러므로 흥미있는 부선들이라고 하여도 주선에 복종시키고 그것을 돋구는 방향에서 설정된다.

단편소설 《우리의 계승》에는 부자간인 오성권과 오덕찬의 관계, 오성권과 연구소소장인 심광진과의 관계가 설정되어있다. 그러나 이러한 관계들은 기본인물관계인 경애하는 원수님과 오덕찬의 관계를 보다 부각시키는데 철저히 복종되어있다.

작품에서 오덕찬과 그의 아버지 오성권과의 관계발전과정은 철저히 경애하는 원수님과 오덕찬의 관계를 심화시키는데 이바지하고있다.

수령형상소설창작에서 인간관계설정의 기본요구는 무엇보다먼저 수령을 중심으로 모든 인물들이 수령형상과제해명을 위한 전반적인 형상구조속에 유기적으로 얹혀지도록 하는것이다.

수령형상소설에서는 수령을 철저히 형상의 중심에 모시고 수령의 위인상과 등장인물들의 성격의 교차가 수령형상과제의 제시와 해결과정에 맞물리도록 하여야 한다.

그러자면 수령의 위인적풍모에 대한 탐구에 기초하여 인물들의 성격을 작품의 기본

주제에 맞게 규정하고 성격론리에 따르는 발전단계와 과정들을 잘 설계하여야 한다.

인물들이 자기의 성격발전과정에 체험하는 수령에 대한 매혹은 작가의 주관이 아니라 성격론리에 기초한 필연적인것으로 될 때 가장 생동하고 진실한것으로 될수 있다.

총서 《불멸의 력사》중 장편소설 《백두산기슭》에서 《대통령감》-리동백의 성격은 자기나름의 타당성과 전제를 가지고 작품의 인물관계에 들어선다.

좌경기회주의자들의 파벌싸움에 대한 쓰라린 체험을 가지고있는 리동백은 유격대를 직접 만나보겠다고 떠난다. 그의 이러한 행동은 지식인의 단순한 호기심을 초월한것이였다. 야심가들에게 룡락당한 조선혁명의 현실에 대한 뼈저린 체험을 안고있는 동시에 수난 받는 조국에 대한 아픔을 안고있는 그였기에 위대한 수령님을 만나뵙고 받아안은 충격과 매혹은 그 누구보다 강렬한것이며 그것은 작품이 제기한 수령형상과제해명에 적극적으로 지향되고있다.

수령을 중심으로 모든 인물들이 수령형상과제해명을 위한 총적인 형상구조속에 얹혀지게 하는데서 인간관계의 심화단계를 명백히 설정하고 사건발전과 밀착시키는것이 중요하다.

사건은 인간관계심화의 생활적바탕이다. 생활을 폭넓고 깊이있게 그린다고 하여 인간관계의 심화과정을 외면하게 되면 산만해진다. 따라서 인간관계의 심화와 해결과정이 작품의 기본주제해명을 위한 기본사건발전선과 일치되도록 형상의 대를 세워야 한다.

총서 《불멸의 향도》중 장편소설 《봄의 서곡》에서 위대한 장군님과 도당책임비서 라충연사이에 맺어지는 인간관계의 발전과정이 작품의 전반사건의 발전과정과 일치한 형상구조를 이루고있다.

결단력있고 완강한 사업기풍을 가지고있지만 인간에 대한 뜨거운 사랑이 부족한 라충연이 위대한 장군님의 품속에서 성장하는 과정은 그가 도안의 인민들과 한덩어리가 되어 함경남도에서 락원예로의 길을 여는 투쟁과정과 일치된다.

수령형상소설창작에서 인간관계설정의 기본요구는 다음으로 작품에 등장하는 모든 인물들이 수령형상과제해명에서 말고있는 형상의 묘를 명백히 규정하는것이다.

수령형상소설에는 각이한 계급과 계층의 인물들이 등장하게 된다. 등장인물들의 수는 작품의 생활령역에 따라 설정될수 있지만 일단 등장한 인물은 자기의 고유한 얼굴을 가져야 한다.

수령형상소설창작에서는 매 인물들이 수령형상과제해명을 위한 자기 묘를 가지도록 하여야 그들이 전반적인 형상체계속에서 자기의 위치를 차지하고 이야기의 전진속에서 자기의 역할을 하게 된다. 형상의 묘를 규정해주는 작업을 통하여 등장인물들은 상대인물인가 촉매인물인가, 주인공의 극적체험을 강화해주는가, 갈등을 더 첨예화시키는 극적계기를 담당하는가 등 구체적인 과제를 받아안게 된다.

수령형상과제의 중량감을 해결한다고 하여 동일한 형상과제를 여러 인물들에게 나누어주는것은 작품의 예술적균형을 파괴하는 결과를 가져온다. 그러므로 매 인물의 개성적 특성에 맞는 형상과제를 성격론리에 따라 심화시켜 수령형상과제해명에 기여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와 함께 인물배치를 합리적으로 하여야 한다.

모든 인물들에게는 맡은 형상과제를 최대한으로 수행할수 있는 자기의 위치가 있는

것이다. 따라서 기계적인 배치가 아니라 수령형상과제해명에서 가장 적극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위치, 전반적인 문학적이야기를 생동하고 특색있게 돈굴수 있는 위치를 찾아 해당 인물들을 세워야 한다.

총서 《불멸의 력사》중 장편소설 《백두산기슭》에서 《대통령감》-리동백은 곡절 많고 파란 많은 우리 인민의 과거사에 대한 운명적인 체험자, 위대한 수령님의 위대성에 대하여 그 누구보다도 진실하고 격조높은 환희를 체험한 인물로서의 형상적역할을 수행하고있다. 이 역할은 리동백을 그 어떤 유격대지휘관의 위치가 아니라 수령의 위인적품모를 진실하게 체험할수 있는 형상적위치에 세울 때에만 가능한것이다.

수령형상소설창작에서 인간관계설정의 기본요구는 다음으로 인간관계를 심각한 극적관계로 조직하는것이다.

인물들의 형상과제를 규정하고 그에 따라 배치한다고 하여 인물관계가 심화되는것은 아니다. 인간관계는 극적으로 심각한 관계로 조직되어있을 때 극성이 강한 이야기가 펼쳐질수 있다.

수령형상소설에서는 대결의 극적관계를 잘 조직하여야 한다.

대결의 극적관계는 수령을 중심으로 한 긍정인물집단과 적대적부정인물을 중심으로 한 부정인물집단과의 대립을 설정하고 그 격렬한 투쟁속에서 수령이 령도하는 사회정치적집단의 필연적승리를 확인하는 극적관계를 말한다. 이러한 극적관계는 생활용적이 큰 소설에서 수령이 령도하는 혁명위업의 간고성과 그 승리의 력사적필연성을 확인하는데서 합리적이다.

수령형상소설에서는 전환의 극적관계를 잘 조직하여야 한다.

전환의 극적관계는 적대적부정집단과의 대립, 충돌이 없이 수령으로부터 받아안은 매혹과 찬탄에로의 극적인 상승과 예상을 뒤집어엎는 새로운 성격발전, 운명적전환으로서 극을 조성하는 극적관계를 말한다.

수령형상소설창작에서는 작품의 소재와 수령형상과제의 특성에 맞게 극적관계를 새롭게 설정하며 극조성과 발전에서 자기 역할을 원만히 할수 있는 상대인물을 발견하고 형상을 심화시켜야 한다.

단편소설 《축복》에서 김영신의 성격형상은 극적관계조직에서 새로운 방법을 보여주고있다. 위대한 수령님의 크나큰 사랑과 믿음속에 성장한 김영신은 일부 불건전한자들의 모함에 걸려 지방에 내려가 시련을 겪는다. 남편과의 결렬이라는 심리적고충속에서도 그는 위대한 수령님께서서 안겨주신 믿음을 잊지 않고 함경북도지구 경공업공장들을 일떠세우기 위하여 아글타글 애쓴다. 작품에서는 인민을 위하여 헌신하는 한 인간의 불같은 모습을 가장 아름답고 행복한 삶으로 빛내여주시는 위대한 수령님의 숭고한 위인적품모를 형상하고있다. 작품에서는 대결과 전환의 극적관계가 밀접히 결합되고있다. 그것은 위대한 수령님의 숭고한 위인적품모에 초점을 두고 곡절많은 김영신의 성격발전과정을 조화시킨것이다. 그리하여 위대한 수령님의 위인적품모를 극성이 강하면서도 정서가 깊은 화폭으로 형상하였다.

수령형상창작에서 인물관계설정방법은 창조적이어야 한다.

모든 작가들은 수령형상소설의 특성을 깊이 파악하고 창작실천에 적극 구현함으로써 수령형상문학의 화원을 더 풍만하고 아름답게 가꾸어나가야 할것이다.